

### Ⅲ. 성경적인 큐티

#### A. 성령님께 의지하는 큐티

큐티를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절대적이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전 2:9-13

---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通達:통하여 도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통달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탐구하다(examine)', '찾아다니다(search)'란 뜻이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탐구하고 찾아다니는 분이시다.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다니실 이유가 없다. 그러함에도 성경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달하다'는 단어로 나타낸 것은 그분의 사역을 우리 편에서 소개했기 때문이다.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다니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목말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이러할진대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큐티를 하는 것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려면 큐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한다. 이러한 간구는 기도시간의 길이에 좌우되지 않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기도해야 한다.

말씀 묵상 전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할 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기도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방식들, 혹은 놀라운 일들을 의미한다. 즉,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놀라운 것을 숨겨 두고 우리가 그것을 열어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비추어 주신다.

#### B.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보통은 깊은 명상에 잠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심오한 명상 훈련을 받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훈련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육성을 듣듯이 들으려 한다.

하지만, 1장에서 큐티의 오해를 다룰 때 언급했듯이 이것은 성경적 묵상 방식이 아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훈련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일반성도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

여야 한다. 극소수만, 그것도 고도의 훈련을 마친 성도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특정 집단에 제한하여 엘리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려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성경이 심각히 다루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의 행태이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가?

요 14:26 \_\_\_\_\_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에 따르면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떠오르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방식을 발견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요 14:17)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곧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자신의 음성을 우리 생각 속에 들려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고 강하게 드러내신다. 성경의 첫 번째 예가 창세기 첫 장의 창조 기사이다. 성령님은 창조 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통제하고 계셨다(1:2).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만물이 창조되었다.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하셨을 때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능력이 나타났다.

또한,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하나로 "성령의 검"이 소개된다.

엡 6:17 성령의 검 \_\_\_\_\_

우리는 보통 성령의 검을 우리가 손에 쥐고 싸워야 할 무기로 여긴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검이 "성령의 검"이라고 소개했다. 즉, 성령님이 가지신 검이다.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엡 6:17). 성령님이 모든 악에 맞서 싸우실 때 취하시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신다는 증거이다. 성령님은 자신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셔서 악을 대적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다른 소리를 들려주실 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울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세미한 음성이란 우리의 고정 관념을 깨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다(왕상 19:11-12).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깨닫는다(고전 2:9, 10a).

왕상 19:11-12 세미한 음성 \_\_\_\_\_

우리 앞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성경 말씀이 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다. 마치 음성을 담은 테이프가 앞에 있고, 우리는 카세트를 열어 그것을 꽂아 듣는 일만 남은 것과 같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치고 큐티를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친절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성경을 묵상하신 예를 보여주심으로써 '성경적인' 말씀 묵상, 즉, 어떻게 성경을 펼치고 묵상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이제 성경 여러 곳에 소개된 예수님의 큐티 모델을 살펴보기로 하자.